

건축과 패션의 비교를 통해 고찰한 구조적 단순성

박 선 지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예술학협동 박사과정

Structural Simplicity Examined from a Perspective of the Comparison of Architecture and Fashion

Seon-Ji Park

Doctoral Course, Dept. of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Studies of Arts, Sungkyunkwan University
(2014. 7. 14. 접수; 2014. 12. 26. 수정; 2015. 1. 2. 채택)

Abstract

Fashion and architecture essentially have structure to build space for a form of three dimensions. This study defines the form in which structure in itself becomes design as structural simplicity and investigates design paying attention to only structure. It is one of efforts in order to display new design required in the age of a flood of design and it is considered that before developing design through the fusion of architecture and fashion, understanding structure which is the most fundamental element to constitute the form of the two genres will be a groundwork to develop proper fusion design. This study elucidates similarities between architecture and fashion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investigates structure meant in architecture and fashion, and after that, collects corresponding examples through related literature and fashion information site. For structural simplicity in architecture, structure of a building in itself is a form and decoration at the same time, and it appears as a form of minimizing other elements and stressing the structure only. Structure in fashion means composition line which essentially exists to embody two dimensional materials onto three dimensional human body. As elements of geometric lines are creatively expressed by a designer in order to constitute three dimensional form from structural simplicity, they connote a variety of functions and exert decorative effects as well. And the shape of structure expressed like this is employed as a tool to show off the designer's techniques.

Key Words: Structural simplicity(구조적 단순성), Architecture and fashion(건축과 패션), Architecture structure(건축 구조), Fashion structure(패션 구조), Logo(로고)

I. 서론

21세기에 들어오면서 패션 연구에서는 다양한 학제간의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며, 역사, 영화와 연극, 문화, 비즈니스, 큐레이팅, 사회학, 인문학, 사회과학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패션과

융합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임은혁, 2014). 특히나 패션과 건축이 융합된 연구는 두 분야의 형태적 유사성과 더불어 많은 부분은 공통분모로 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8세기 건축과 패션 사이의 활발한 교류가 시작된 이래로 최근 30년 가까이 패션과 건축은 미학연

구에서 유사한 분야로 연구되어 왔다(Hodge, 2006). 패션과 건축은 인간행동과 생활환경에 관련된 역사성을 지닌 시간과 공간의 산물이라는 측면에서 특별한 관계를 구축해오고 있으며(박신미, 이재정, 2007), 인간의 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능적 예술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특히 패션과 건축은 3차원의 형태로 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구조라는 요소를 필수적으로 지닌다는 공통점이 있다.

건축과 패션의 연관성과 두 분야의 유사성을 언급한 연구는 건축과 패션의 용어 공유 및 개념적 유사성, 두 분야 사이의 소통에 대해 연구한 Kinney(1999), Wigley(2001), McLeod(1994), Castle(2001) 등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패션과 건축의 분야에서 김기수(2009), 박신미, 이재정(2007), 이해라(2012), 나유신(2013) 등 두 분야의 유사한 흐름을 연구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다양한 디자인의 건축과 패션의 형태가 등장하였고 그들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두 분야의 필수 요소 중 하나인 구조 그 자체가 디자인이 되는 형태를 구조적 단순성이라고 정의하고 구조에만 주목한 디자인에 대해 연구한다. 이는 범람하는 디자인시대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하고 생산하기 위한 일환으로, 앞으로의 건축과 패션에서의 융합을 위해 가장 기본 개념인 구조에 대해 인지하고 그 개념 및 표현 방식을 비교해보는 데 목적이 있다. 건축과 패션의 융합을 통한 디자인을 개발하는 데 앞서 두 장르의 형을 이루는 가장 기본 요소인 구조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 연구가 제대로 된 건축과 패션의 융합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한 기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건축과 패션에서 세부적인 장식은 배제하고 3차원의 형을 이루는 데에 필수적 요소인 구조만을 이용한 디자인에 대해 연구하고, 건축과 패션에서의 구조적 단순성에 대해 비교해 본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건축과 패션사이의 유사성을 밝히고 건축과 패션에서 의미하는 구조의 개념에 대해 연구한 후, 그에 부합하는 예시를 관련 문헌 및 패션 정보 사이트(퍼스트뷰코리아: www.firstviewkorea.com)를 통

해 수집하여 실증적으로 연구한다. 본 연구는 건축과 패션에서 다른 장식 없이 구조의 형태만을 부각시키기 위해 활용한 방법들을 고찰하여 구조의 단순성이 각 분야에서 활용되는 예시들을 통해 두 분야에서 구조의 단순성이라는 개념을 비교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각 분야의 작품들 중 200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구조의 형태만을 활용한 건축물과 여성복 컬렉션을 살펴보고 각각의 개념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예시들을 선정하여 개념을 이해시키는 데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의복의 삼차원성이 기본개념을 이루며, 합목적성 추구라는 건축과의 공통점을 지닌 서양의복구성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건축과 패션의 상호 연관성

건축과 패션은 인간의 신체, 공간과 운동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으며, 의복은 신체를 감싸고 있는 건축물이며 건축은 가장 확장된 의미의 의복이라고 할 수 있다(어경진, 박현신, 2011). 건축과 패션은 형태를 만들려는 의지를 담고 창조물을 구체화시키며 인간의 의식을 간접적으로 표명하는데, 반드시 조형적인 형태로 구현된다(박신미, 이재정, 2007). 건축과 패션은 목적에 따른 3차원의 결과물을 조형적으로 실체화하며, 목적을 지닌 조형물이라는 점에서 순수예술과 구별된다. 건축과 패션은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을 창조한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며, 건축이 인간의 거주 공간을 창조하는 것처럼 패션 역시 인체가 거주하는 최초·최소의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다(조성민, 2003). 따라서 건축과 패션을 연구할 때에는 그들의 기능적인 면을 무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건축과 패션은 공간적 요소와 함께 형태, 질감, 재료, 색채 등의 외장으로서의 공통성을 지니며, 패션과 건축의 조형적 양식의 상관성은 어떠한 시대적 양식을 떠나 현 경향의 사조나 체계를 바탕으로 한 상호 긴밀한 관련성을 가짐



<그림 1> 루브르 박물관
 (출처: The Louvre.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The_Louvre)

에 따라 유사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지닌다(김유경, 2009). 인체와 관련해서 실용적이며 유동적인 공간조형을 창조해야 하는 건축과 의복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각각의 미의식이나 기능성, 구조적 효용성 등을 차용해 왔다(김소영, 양희영, 2010). 최근 들어 건축과 패션에서는 서로의 분야를 융합하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으며, 각 분야의 경계들이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건축적’, ‘구축’, ‘조각적’과 같은 수식어는 패션 비평에서도 흔히 마주치게 되었고, 건축 역시 의복 계획과 ‘draping’, ‘wrapping’, ‘weaving’, ‘folding’, ‘printing’ 등의 패션 용어, 그리고 주름 표면과 직물 등을 적극 차용하기 시작했다(Hodge, 2006). 또한 건축적 요소가 복식의 예술적 표현의 장으로 존재함으로써 복식이 건축을 비롯한 예술 분야와 통합적 조형양식으로 동시대의 사상과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김유경, 2009).

그러나 존 플뤼겔(J. C. Flügel)은 그의 저서 *The psychology of clothes*(1930)에서 집과 같이 의복은 신체 보호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의복이 몸에 더 가깝고 몸에 의해 지지된다는 차이가 있으며, 집과는 달리 의복은 휴대가 가능하다고 비교하였다(임은혁, 2014). 건축은 패션과 달리 한번 건축되면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자리하고 있으며, 단단하고 딱딱한 재료들로 만들어진다. 또한

패션에 비해 공간의 규모나 형태의 크기가 현저히 크다. 반면 패션은 부드럽고 유동적인 재료들을 사용하며 계속해서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패션은 유행에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덧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 특정 양식이 특정 시대에만 나타나는 것인 데 반해 건축은 한 장소에 이전 시대에 지어진 건축물과 현재 건축된 건축물이 함께 존재하는 형태를 보여준다. 그 예로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을 보면 12세기 말에 지어진 요새에서 시작된 루브르의 역사는 20세기 유리 피라미드를 거쳐 전통과 현대미학이 이루는 절묘한 조화를 자랑하며 문화수도 파리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다(함혜리, 2014)(그림 1).

이러한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건축과 패션 두 분야 모두 몸에 거처를 마련하는 기능을 가지며 예술적 열망을 내포한다는 측면에서 유사성이 존재해왔다(임은혁, 2014). 건축과 패션이 지속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면서 최근 들어 두 분야의 학제간 연구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두 분야의 융합을 통해 이루어진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추세이다.

2. 건축과 패션의 구조

패션과 건축은 공간과 형태에 관련된 예술 활동이다(Joedicke, 1999). 형태는 시각적 지각대상

이 되는 물건의 윤곽이나 삼차원의 매스나 볼륨을 뜻하는 철학적인 개념으로 물건의 실제적 본질에 의한 외형적 양식을 의미한다(한석우, 2002). 형태는 구조이며, 소재와 구조는 형태를 결정하지 않지만 제한한다(Joedicke, 1999). 구조란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 각각의 부분들이 특정한 규칙에 의해 연결되어 짜 맞추어진 형태를 의미한다. 구축 또는 구성이라고도 번역되며, 형태나 재료 등을 소재로 해서 시각과 역학 혹은 정신 역학적으로 조직하는 것을 의미한다(월간미술, 2010). 건축과 패션에서의 공간은 형태 없이는 지각될 수 없고, 구조는 형태를 만들어 내기 위한 틀로써 필수적으로 존재한다.

건축디자인은 건축물 내·외부가 외관상의 마감을 가질 수 있도록 형태, 채광, 음향, 색채 등 전 분야에 걸쳐 종합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건축의 창작이라고 할 수 있다(윤천근 외, 2007). 건축에서 구조란 건축물의 거대한 하중을 효율적으로 받쳐주는 것, 곧 물체를 붙들어서 버티게 해 형태를 유지하게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틀을 일컫는다(박신미, 이재정, 2007). 즉, 다양한 건축 재료를 사용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형태를 이루는 것으로, 크게는 건물의 뼈대부터 세부적으로는 마무리에 이르는 세부구조를 포함한다. 건축은 인간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3차원의 공간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으로 그 공간을 구조라는 부재(member of framework, 部材)들을 통해 구성하여야 한다. 부재란 건물의 뼈대를 구성하는 기둥이나 보, 지붕틀 구조 등의 재료를 일컫는데, 어떠한 건축물이든 부재를 통한 구조 없이는 형태가 존재할 수 없다.

구조는 건축의 형태 유지에 관계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구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건물 형태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한다. 건축 구조는 특히 건축물의 용도, 규모, 구조의 종별, 지반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초, 보, 바닥, 벽 등을 유효하게 배치하면서 건축물 전체가 이에 작용하는 각종 하중에 대해 구조 내력상 안전한지를 고려해야 한다(전봉수, 2002). 따라서 건축 구조에서는 구조설계 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듯 안전과 공간 형태의 유지라는 중요한 임무를 띠고 건축 역사 속에서 건축의 필수 요소로 견제해 오고 있던 구조는 근대에

와서 진보적인 건축가들에 의해 재료의 물성이 그대로 드러내며 구조미를 강조한 형태의 건축물들이 설계되면서 건축 미학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다. 현대건축에서 구조미는 구조의 미학적 특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최소부재로 최대구조물을 구축하는 경향으로 발전하였다(김정현, 최정민, 유진상, 2009).

반면 패션은 인체를 매개로 하여 인간의 사회적, 문화적 특징을 표현하는 가장 시각적인 매체로 건축과는 다르게 인체 위에 직접적으로 입혀지며, 만들어지는 3차원 공간이 한 사람의 몸을 둘러싸는 정도로 건축의 규모보다는 현저히 작은 크기이다. 패션에서 구조란 의복을 구성하는 구성선을 비롯해 형태를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요소를 일컫는다. 의복에서의 구성선은 평면 소재를 입체적인 인체위에 형상화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로 2차원의 평면인 소재를 3차원의 공간의 형태로 만들기 위해 필연적으로 구성된다(박선지, 임은혁, 2013). 의복의 구성선은 신체의 움직임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신체구조의 특징에 부합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기능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배치된다. 의복에서는 인체의 곡선흐름 위에 평면의 원단을 놓을 수 있도록 건축의 부재와 같은 사이드심, 닥트선, 턱이나 개더 등을 활용한다. 패션디자이너는 인체 구조의 연구를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디자인을 창조하고 있으며, 최근의 구성 및 제작방식은 기능적 요소를 적용하여 디자이너의 창조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인체 활동을 보장해 주도록 하고 있다(김경아, 박선경, 2013).

건축과 패션에서 구조는 3차원의 형태를 구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할 기본 요소이며, 구조가 기능과 디자인의 미적 욕구 모두를 충족시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건축에서 기둥이나 골조로 나타나는 구조의 형태는 패션에서는 구조적 실루엣으로 나타나며, 소재의 활용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된다(박신미, 이재정, 2007). 건축의 구조에서 견고함과 안정감을 확보하기 위해 콘크리트나 철근과 같이 딱딱하고 튼튼한 재료들이 사용되고 패션에서 구조의 실루엣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대비되는 소재가 활용되는 것처럼 패션과 건축에서의 구조와 소재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구조는 재료와 구현방

<표 1> 건축과 패션의 외부 형태 비교

분류	건축	패션
형태	공간, 구조, 외피의 통합에 의해 표현	실루엣을 통한 부드러운 형태
재료	다양한 재료의 이용이 가능하나 재료에 의해 형태가 고정되어야함	재료의 한계가 없어지고 있지만 인체의 움직임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됨
패턴	반복적인 구성요소의 사용으로 전체적인 통일감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반영

(출처: “이세이 미야케 패션디자인의 건축적 해석을 통한 플래그쉽 스토어 계획안” 황효택, 최준성, 오덕성, 2012,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8(1), p. 260.)

법 및 유지방법, 디자이너의 감성표현 등이 밀접하게 연결된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건축과 패션의 가장 기본이자 필수적인 요소이다.

건축과 패션에서 구조에 의해 만들어진 외부 형태들에 대해 비교해보면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III. 건축과 패션에 나타난 구조적 단순성

본 장에서 논의할 구조적 단순성이란 앞에서 고찰한 구조의 개념을 토대로 건축과 패션이 3차원의 공간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존재하는 구조에만 주목하여 다른 장식은 최대한 배제하고 구조가 곧 디자인이자 장식이 되는 형태를 일컫는다.

1. 건축에서의 구조적 단순성

건축에서 구조적 단순성이란 형태를 구성하는 다른 요소들은 최대한 배제하고 장식 없이 오로지 건물의 구조, 틀만 드러내는 디자인을 의미한다. 건축에서 구조적 단순성의 표현 방법은 기본 구조 노출, 독특한 구조, 면적 구조로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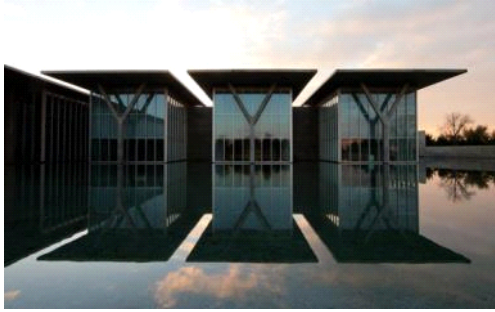
1) 기본 구조 노출

기본 구조의 노출이란 건축에서 건물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떠받치는 건물의 뼈대를 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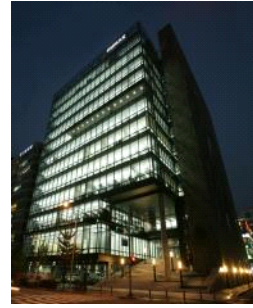
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건축물의 구조, 즉 부재 노출은 단순한 디자인적 접근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에 의한 조형형태 때문에 우수한 디자인 효과를 나타낸다(감정현, 최정민, 유진상, 2009). 일반적인 건축물에서는 건축의 구조는 외피에 덮여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일정한 방식으로 구조를 의도적으로 노출시킨다면 그 자체로 건물을 지탱하는 틀이 되는 것과 동시에 장식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구조를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는 형태는 단순한 표현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외피에 덮여져 겉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를 과감하게 노출시키면서 구조 자체로 뛰어난 디자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물성을 강조한 단순한 구조의 노출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안도 다다오(Tadao Ando)의 포트위스 현대미술관(The New Modern Art Museum)(그림 2)을 들 수 있다. 포트위스 현대미술관은 최소한의 구조 골격과 조화되는 열린 공간을 표현하였는데, 수직, 수평의 철골 구조의 반복과 유리벽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붕을 떠받치기 위해 설계된 Y자 형태의 콘크리트 구조는 무겁고 견고한 인상을 주지만 그 뒤에 유리외 철골구조의 반복으로 열린 느낌을 주어 시각적으로 부담없이 다가온다. 또한 규칙적으로 엄격하게 나뉜 구조의 배열을 통해 단순하지만 인상적으로 건물의 가시적 실체를 드러내고 있으며, 같은 재료의 반복을 통해 통일감을 극대화시킨다.

건축가 승효상의 휴맥스 빌리지(그림 3) 또한 구조의 노출과 반복을 통한 구조의 단순성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철골 구조의 수직, 수평의 나열과 유리를 통해 구조의 노출을 보여



<그림 2> The New Modern Art Museum, 2002. Tadao Ando
(출처: 최연희. (2013. 1. 25).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861236>)



<그림 3> 휴맥스 빌리지, 2002. 승효상
(출처: 휴맥스. http://www.humaxdigital.com/kr/images/picture/building_1.jpg)

주며, 철골의 색을 유리와 대비되는 검은색으로 사용하여 철골 구조의 반복을 극대화하고 있다.

2) 독특한 구조

구조적 단순성에서 독특한 구조란 건축의 구조가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면서도 건축가에 의해 독창적인 구성형태로 나타나 미적, 장식적 역할이 극대화된 형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독특한 형태는 최근 들어 더 많이 주목받고 있으며, 건축 디자이너의 독창성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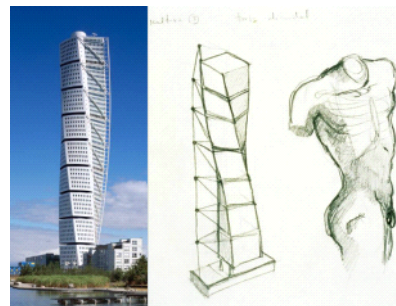
구조의 독특한 형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건축가로 산티아고 칼라트라바(Santiago Calatrava)를 꼽을 수 있다. 칼라트라바는 인체나 생물체의 역동적 동작에서 미적 모티브를 습득, 정밀한 공학 이미지로 축조하여 구조미를 드러내는

건축가로 구조미학이라는 독특한 분야를 개척하였다(감정현, 최정민, 유진상, 2009). 칼라트라바의 피스 브리지(Peace Bridge)(그림 4)는 독특한 모양의 철골 구조물과 유리가 함께 외피를 구축하면서 동시에 구조를 지탱하고 있다. 또한 조명을 철골 구조물에 직접적으로 부착하여 다리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칼라트라바의 또 다른 작품인 터닝 토르소(Turning Torso)(그림 5)도 건축가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에서 비롯한 독특한 구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터닝 토르소는 인체의 척추와 같은 느낌을 주도록 디자인 되었으며 건축물의 가장 아래층과 최고층은 90도의 차이를 두고 회전한 형태로 설계되었다. 5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강철 육면체를 약 11°씩 방향을 틀어가며 총 9개를 포개 형식으로 각각의 육면체를 지탱하고 연결하기 위한 구조가 외부로 완전히 드러



<그림 4> Peace Bridge, 2010-2012. Santiago Calatrava.
(출처: Santiago Calatrava. <http://www.calatrava.com/#/Selectedworks/Architecture/Calgary?mode=english>)



<그림 5> Turning Torso, 2005. Santiago Calatrava
(출처: Santiago Calatrava.
<http://www.calatrava.com/#/Selectedworks/Architecture/Malmö?mode=english>)



<그림 6>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2009. Alvaro Siza
(출처: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http://mimesisart.co.kr/mimesis-art-museum/>)



<그림 7> Asencio House, 2000. Alberto Campo Baeza
(출처 : Alberto Campo Baeza.
<http://www.campobaeza.com/asencio-house/?type=catalogue>)

나 뒤틀린 독특한 형태의 거대한 철골 구조가 노출되어 있다.

3) 면적 구조의 강조

면적 구조로 나타나는 구조적 단순성은 구조와 외피가 완전히 통합되어 구조와 외피의 구분이 사라지고 단일한 벽면의 형태로 건축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건축물 전체에서 구조의 흔적을 의도적으로 지우고 외피가 곧 구조이자 내력벽이 되는 형태로 단순한 평면형태의 외피를 통해 자연스럽게 구조미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구조와 외피의 통합을 통한 건축의 대표적 예는 포르투갈 출신의 건축가인 알바로 시자(Alvaro Siza)의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그림 6)이 있다.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은 겉으로 드러나는 구조물은 외피 안으로 사라지고 모든 구조의 형태는 선이 아닌 면으로 드러난다. 건물 외부의 형태만이 아닌 내부에서도 어떠한 구조적 선의 형태는 찾아볼 수 없으며, 흰색의 벽으로 된 면의 형태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알베르토 캄포 바에자(Alberto Campo Baeza)의 아센시오 하우스(Asencio House)(그림 7) 또한 구조와 외피의 통합을 통해 나타난 건축물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본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과 마찬가지로 아센시오 하우스 또한 겉으로 드러나는 구조의 형태를 외피, 즉 벽면 안으로 감추고 벽면 자체가 건축물을 지탱하는 구조가 되는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2. 패션에서의 구조적 단순성

패션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단순성은 명료하게 정리된 인체의 외곽선을 따라 신체의 움직임에 자유롭게 하는 기능을 내포한다. 패션에서의 구조적 단순성의 표현 방식도 앞의 건축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본 구조의 노출, 독특한 구조, 면적 구조의 강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건축과 패션의 차이를 고려하여 구조는 구성선으로 이해될 수 있다.

1) 기본 구조의 노출

먼저 기본 구조의 노출은 의복의 형태를 구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기본 구성선을 시각적으로 극대화 시켜 노출하는 형태이다. 기본적으로 의복에 들어가는 옆 솔기선(side seam)이나 다트(dart)의 선을 부각시켜 평범하고 단순한 디자인에서도 미적으로 우수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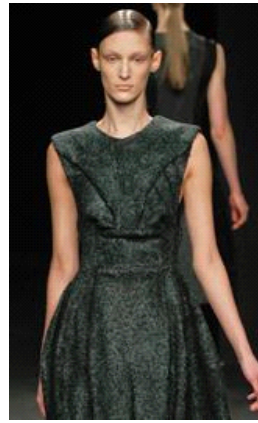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은 2007년 그의 F/W 컬렉션에서 소재의 구성선 사이에서 나타나는 음영을 활용하여 구성선을 노출하는 방식으로 단순하면서도 매력적인 디자인을 보여준다(그림 8). 맥퀸은 그동안 새로운 방식의 재단법과 완벽한 테일러링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패션을 시도한 디자이너로 이 컬렉션에서는 음영을 통해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구성선 이외에는 인체의 형태에 맞추기 위해 삽입된 다른 구성선은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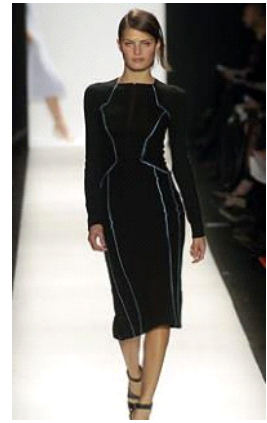
<그림 8> Alexander McQueen. 2007 F/W. (출처: Alexander McQueen. 2007 F/W.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9> Sportmax. 2010 F/W. (출처: Sportmax. 2010 F/W.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10> Calvin Klein. 2012, F/W. (출처: Calvin Klein. 2012 F/W.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11> Narciso Rodriguez. 2004 F/W. (출처: Narciso Rodriguez. 2004 F/W. <http://www.firstviewkorea.com/>)

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스포트막스(Sportmax)의 컬렉션에서도 기본 구조의 노출을 통한 구조적 단순성의 예시를 찾아볼 수 있다. 스포트 막스의 2010년 F/W 컬렉션을 보면 검정색 코트의 구성선 위에 대비되는 색인 흰색의 실을 이용한 상침을 올려 구성선의 형태를 가지적으로 명확히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형태적으로 안정감을 준다(그림 9). 구성선 위에 올라가는 봉제선인 상침을 활용하여 장식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형태를 안정시키고 내구성을 높여줄 수 있다. 또한 상침은 스포티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2) 독특한 구조

패션에서 독특한 구조는 특별한 장식 없이 디자이너의 독창적인 구성선만을 통해 조형미를 보여주며 의복의 형태를 구성하는 데에 무리가 없는 동시에 구조 자체가 디자인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기본적으로 의복을 구성하기 위한 기능적인 역할을 하되 구성선 자체에 장식적인 효과가 극대화 되어 나타나는 형태이다.

<그림 10>은 캘빈 클라인(Calvin Klein)의 2012년 F/W 컬렉션 중 하나로 일반적인 구성선의 형태를 벗어나 구성선 자체에서 디자이너의 독특한 감각을 보여주고 있으며, 두께감이 있는 기모

소재를 활용하여 최대한 구조형태를 노출시키고 있다. 무늬 없는 짙은 회색의 기본적인 X자 실루엣의 민소매 원피스의 형태지만 독특한 구성선이 바디스 정중앙에 위치하면서 그 자체가 장식되어 미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또한 미국의 디자이너 나르시소 로드리게즈(Narciso Rodriguez)는 디자이너의 독특한 패턴을 강조하기 위해 2004년 F/W 컬렉션에서 블랙에 대비되는 색의 파이핑을 이용한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그림 11). 독특한 형태의 구성선 사이에 파이핑을 끼워 구성선의 형태를 강조하는 방법으로 대비되는 색을 이용한 파이핑은 멀리서도 구성선의 모습을 또렷하게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어 장식 효과를 가져다준다.

3) 면적 구조의 강조

면적 구조로 나타나는 구조의 단순성은 건축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성선의 형태는 겉으로 드러나는 소재의 외피에 가려 사라지거나 디자이너의 패턴 테크닉을 통해 구성선을 최대한 배제하고 만들어지는 형태를 의미한다. 즉, 선적 구조를 없애고 면적 구조가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로 닥트나 솔기를 최대한 없애고 드레이프 시켜 눈에 보이는 구성선의 형태 없이 신체에 자연스럽게 피트(fit)되는 형태이다.

대표적인 미니멀 브랜드인 질 샌더(Jil Sander)

의 컬렉션에서 구성선없이 면적인 형태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질 샌더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라프 시몬스(Raf Simons)는 2008년 F/W 컬렉션에서 구성선의 선적인 형태를 없애고 소재 자체의 드레이프성을 활용하여 외피 즉 면으로만 구성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12). 자연스럽게 늘어진 면의 형태를 통해 구조미를 표현하고 있다.



<그림 12> Jil Sander. 2008. F/W
(출처: Jil Sander. 2008. F/W.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13> Calvin Klein. 2010. F/W.
(출처: Calvin Klein. 2010 F/W.
<http://www.firstviewkorea.com>)

캘빈 클라인(Calvin Klein)의 2010년 F/W 컬렉션에서는 구성선을 없애고 남는 여분을 개더주름으로 처리하여 길으로 선의 형태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면적 구조를 보여준다(그림 13). 푸른색의 미니멀한 디자인의 이 드레스는 가슴부분

을 몸에 맞게 만들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유 분량을 자연스럽게 네크라인의 약한 주름들로 대체해 면적 구조가 강조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3. 건축과 패션에 나타난 구조적 단순성 비교

건축에서 구조적 단순성이란 형태를 구성하는 다른 요소들은 최대한 배제하고 장식 없이 오로지 건물의 구조, 틀만 드러내는 디자인이었으며, 패션에서는 몸에 자연스럽게 맞추어 만들어진 장식 없는 디자인에서 구성선만을 부각시킨 형태를 의미했다. 건축과 패션에서 구조적 단순성의 표현 방식은 3차원의 형을 구성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구조의 노출과 구조로서의 기능은 하면서도 디자이너의 독창성에 의해 독특하게 구성되는 구조의 조형미를 강조한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또한 반대로 선적인 구조를 없애고 외피와 구조를 통합시켜 면적인 구조를 강조한 형태도 나타났다. 건축과 패션에서의 구조적 단순성을 <표 2>로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이전의 구조가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해야 하지만 외관의 미적 효과를 얻기 위해 숨겨야 하는 존재였다면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구조적 단순성은 구조 자체에 주목하여 구조가 디자인의 중요한 미적 포인트가 되었다. 건축에서는 건물을 구성하고 지탱하기 위해 구조의 내력 및 하중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며, 건축물에 사용된 구조적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해 구조 자체

<표 2> 건축과 패션의 구조적 단순성 비교

분류	건축 : 구조, 틀	패션 : 구성선
기본 구조의 노출	건축물을 이루는 기본 구조의 노출 : 수직, 수평의 절골 구조+유리	의복의 필수 구성선의 노출 : 다트, 솔기선의 강조
독특한 구조	건축가의 독창성이 반영된 독특한 구조(외피) : 테크닉 과시+심미성	디자이너의 독창성이 반영된 독특한 패턴(구성선) : 테크닉 과시+심미성
면적 구조의 강조	구조와 외피의 통합 : 단순한 평면 형태의 강조	구성선이 사라지고 면의 형태가 강조 : 자연스러운 드레이프, 주름

가 형태가 되고 장식이 되어 겉으로 분명하게 드러났다. 패션에서는 이차원의 소재를 삼차원의 인체위에 형상화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존재하는 구성선을 강조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의복의 구성선은 인체위에 바로 입혀진다는 의복의 특성상 인체의 움직임에 방해되지 않도록 인체의 형태와 구조에 맞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얼마나 잘 맞는 패턴을 보여주는냐에 따라 디자이너의 테크닉을 과시할 수 있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건축과 패션의 융합을 통해 고찰한 구조적 단순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건축과 패션은 3차원의 형을 이루기 위해 구조라는 필수적 요소를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었으며, 구조만을 강조하고 다른 장식적 요소는 배제시킨 구조적 단순성이라는 측면에서 개념적으로 유사한 접근을 보여주었다.

건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단순성은 건축물의 구조 자체가 형태이자 장식이 되며, 다른 요소를 최소화하고 구조만 부각시키는 형태로 나타났다. 패션에서 구조란 이차원의 소재를 삼차원의 인체위에 형상화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존재하는 구성선을 의미하며, 다른 장식 없이 구성선을 부각시키는 형태로 나타났다. 건축과 패션에서 구조적 단순성의 표현 방식은 3차원의 형을 구성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구조를 노출하는 기본 구조의 노출, 구조로서의 기능은 하면서도 디자이너의 독창성에 의해 독특하게 구성되는 구조의 조형미를 강조한 독특한 구조, 선적인 구조를 없애고 외피와 구조를 통합시켜 면적인 구조를 강조한 면적 구조의 강조로 나타났다. 구조의 단순성에서 3차원의 형을 구성하기 위한 기하학적인 선의 요소가 디자이너에 의해 독창적으로 표현되면서 다양한 기능을 내포하는 동시에 장식적 효과도 누리고 있으며, 이렇게 드러나는 구조의 형태는 디자이너의 테크닉을 과시하기 위한 도구로도 사용되고 있었다. 건축과 패션에서의 구조는 형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틀이라는 의미는 유사하나 그 형태는

완전히 달랐다. 건축에서의 구조는 딱딱한 물체로 이루어진 틀을 의미하나 패션에서는 소재와 소재가 만나는 시점부분에서 나타나는 선을 의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과 패션의 소재적, 형태적, 기능적 차이점을 고려하여 건축과 패션에서의 구조적 단순성을 부각시킨 작품들에 대해 접근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건축과 패션의 융합을 통한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두 학문의 융합을 통해 소재가 고갈된 디자인의 범주를 넓히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감정현, 최정민, 유진상. (2009). 산티아고 깔라뜨 라마 건축 구조미표현과 구축방식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5(3), 167-174.
- 김경아, 박선경. (2013). 기능적 요소의 관점에서 본 알렉산더 맥퀸의 의복구성 분석. *기초조형학연구*, 14(5), 29-39.
- 김기수. (2009). 건축과 패션, 실내디자인의 스킨디자인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8(4), 31-42.
- 김소영, 양희영. (2010). 루시 오르타 작품 디자인 특성 연구: 건축적 디자인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2(2), 41-54.
- 김유경. (2009). 건축적 조형성이 반영된 현대 패션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5(4), 97-107.
- 나유신. (2013). *현대 패션과 건축 디자인에 나타난 지속가능성 경향*.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선지, 임은혁. (2013). 패션과 건축에 표현된 기능주의적 미니멀리즘 비교. *한국의류학회지*, 37(3), 247-259.
- 박선미, 이재정. (2007). 패션과 건축의 조형적 패러다임 유사성 고찰. *기초조형학연구*, 8(4), pp. 261-277.

- 어경진, 박현신. (2011). 디지털 시대에 나타난 패션의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건축의 영향을 받은 패션을 중심으로.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1(2), 55-74.
- 월간미술. (2010). *세계미술용어사전*. 서울: 월간미술.
- 윤천근 외. (2007). *건축표현기법*. 서울: 기문당.
- 이혜라, 간호섭. (2012). 누드 건축 양식을 응용한 패션 디자인 연구. *복식*, 62(3), 39-56.
- 임은혁. (2014). 건축적 패션디자인의 구조적 전략. *패션비즈니스*, 18(1), 164-181.
- 전봉수. (2002). 콘크리트 교육에 대한 건축구조설계 실무자의 제언. *콘크리트학회지*, 14(1), 19-22.
- 조성민. (2003). *패션쇼 전용관 계획안: 해체주의 의상의 건축적 해석을 통하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석우. (2002). *입체조형 이론과 실제*. 파주: 미진사.
- 함혜리. (2014. 6. 25). [함혜리 선임기자의 미술관 건축기행] (5) *佛 파리 루브르 박물관*. 서울신문. p. 20.
- 황효택, 최준성, 오덕성. (2012). 이세이 미야케 패션디자인의 건축적 해석을 통한 플래그쉽 스토어 계획안.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8(1), 259-262.
- Castle, H. (2001). *Fashion + Architecture*. London: Academic Press.
- Hodge, B. (2006). *Skin + Bones: parallel practices in fashion and architecture*. London: Thames & Hudson.
- Joedicke, J. (1999). *건축의 공간과 형태 (진경돈 역)*. 서울: 시공문화사.
- Kinney, L. W. (1999). Fashion and fabrication in Modern architecture. *The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tectural Historians*, 58(3), 472-481.
- McLoed, M. (1994). Architecture: In fashion. In Fausch, D., Singley, P., El-Khoury, R. & Efrat, Z. (Eds), *Undressing architecture: Fashion, gender, and modernity*. (pp. 38-123).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 Wigley, M. (2001). *White Walls, Designer Dresses: The Fashioning of Modern Architecture*. Cambridge: MIT Press.